

“컴퓨터머리”란 “말”의 遺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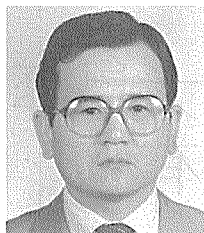
聖經에 “太初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萬物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다.

컴퓨터가 萬能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어 “말씀(WORDS)”을 컴퓨터의 “말”(Language)과 關聯해서 생각해 보았다.

聖經의 “太初의 말씀(WORDS)은 “Logos”를 뜻하는 全知全能者 次元의 “말씀”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고, 컴퓨터에서 “말”은 하나의 “말”(Language)로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기에 英英辭典에서 찾아보니 “Words used by a profession or class”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Words와 Language은 그 等級的次元(Class)은 다르다고 하여도 본래의 뜻은 같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말로 “말” “말씀”으로 表現한다고해도 틀리지 않은 表現이라 하겠다.

나는 所謂 電算經歷이라는 것이 10余年 쯤 되기는 하는데 모두 한 職場에서의 一般業務處理에 컴퓨터를 利用하고자 소프트웨어, 좁혀 말해서 프로그램, 아니 더좁혀 ‘命令(Instruction)’ 들을 機械語(한번도 안써봤지만)든, Assembly 語든, 高級語든, 어떤 것으로 된 것이든간에, 즉 이 “말”(Language)들을 利用하여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設計하여 “말”을 만들어서(Programming)일을 하게(Pro-

김익수
대한주택공사 전산부장



cessing)하여 그 結果(Output)를 얻게 되는 것이었다.

우리 人間들은 “말”(Language 또는 Words)을 가지고 無限하게 知識을 넓혀 가고 있으며 能力을 向上시켜 神의 境地에 挑戰하고 있는 “바벨탑”을 쌓고 있거나 않은지?

컴퓨터가 아무리 發達되어 人間の 知識과 能力을 急速하게 向上시켜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全知全能할 수 없는 無限의 世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人間들은 느껴야 할 줄 안다.

多裁多能한 자가 더 좋은 S/W를 만들 수는 있을것이나 그것은 그 사람의 限界 以内일 것이다. 그러나 被造物이 創造者 以上일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크고 좋은 컴퓨터시스템일지라도 그 하는 일은 “말”(Software)의 指示 內容 以上일 수 없고, “말”을 만들어준 人間 以上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사람 컴퓨터야!” “저사람 컴퓨터 머리를 가졌어!” “나는 컴퓨터가 못돼!”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들 對話에서, 新聞의 人物評 같럼 같은데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컴퓨터 같은 사람”, “컴퓨터머리를 가진 사람” 融通性 있는 創造的인 사람일까? 아니면 로봇 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닐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컴퓨터에 대해 아는 사람일까? 다시한번 여러가지를 생각해 한다.